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1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II

샌디에이고市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도시로"

브리티시컬럼비아州 탄소세 인상 등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 추진

발리州 열정·혁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종합개발비전 지속 추진

자카르타州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적극
적응·동참 촉구

바르셀로나市 문화 분야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제 위기 극복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뉴욕	윤규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디에이고	김민희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워싱턴 D.C.	이정근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시아·아프리카〉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이은주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이선인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상하이	문혜정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나이로비	한 울

〈유럽〉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허윤희
바르셀로나	박정수
	진광선
런던	이용훈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도시로”

미국 샌디에이고市 /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 신년사

샌디에이고市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노숙자 주거 지원, 주택공급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평등 도시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할 계획

코로나19 대응

- 市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 대처할 계획
 -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건소와 협력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백신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
 -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방역과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

노숙자 지원 정책 지속 추진

-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하지 않는 컨벤션센터를 노숙자 임시거처로 전환하여 코로나 19에 취약한 노숙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市 주택국은 지역 노숙자 문제 전담 TF(Regional TF), 컨벤션센터 측과 협력하여 2020년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1,200명의 노숙자와 노숙자 가정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
 -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州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홈키’¹⁾ 정책을 활용하여 노숙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리 및 재활,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여 노숙자 관련 사회문제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

1) 캘리포니아 州정부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숙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州정부 및 연방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호텔을 매입한 뒤 노숙자를 위한 영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https://nextcity.org/daily/entry/californias-project-homekey-turns-hotels-into-housing?gclid=Cj0KCQjwsLWD-BhCmARIsAPSL3_0bAonXZOC_11iSGnq2zkSmY5uJSYCZV-aGnZV4roSQhCd8EHywf0AaAk9REALw_wcB)

주택공급 확대

- 샌디에이고가 직면한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샌디에이고市는 미국 내에서도 주택가격 중간값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중산층 가정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 市 가구당 소득 중간값은 약 8만 5천 달러, 주택가격 중간값은 65만 달러로, 市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교통기반시설 강화

- 市는 SANDAG(The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과 협력하여 ‘5 Big Moves’라고 알려진 2021 지역계획²⁾을 승인하고자 함
- 市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강화를 위한 도시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의 관련 예산계획을 발표할 계획
- 2015년에 수립해 발표한 ‘비전 제로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심 중심지인 5번가와 ‘가스램프 쿼터’를 차 없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활기찬 도심공간을 창출
- 가스램프 쿼터는 市 중심지에 있는 역사보전지구임. 과거 샌디에이고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원들과 해군들을 위한 숙박시설, 소매점, 술집 등이 위치해 있던 장소였는데, 빅토리아 양식을 주제로 하는 역사지구로 탈바꿈하면서 오늘날 도심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은 곳임³⁾

평등 도시 조성 및 치안 강화

- 市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인종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력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감시체제를 구성하여 공권력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함
-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市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숨진 사건을 말하며, 이는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됨⁴⁾

2) 출처: https://www.sandag.org/uploads/publicationid/publicationid_1811_16978.pdf

3) 출처: <https://www.sandiego.com/attractions/gaslamp>, 현황도 출처: https://www.gaslampmap.com/uploads/5/1/1/51119583/gaslamp_2017_final_2sided.pdf

- 인종 및 형평성 사무국(Race & Equity Office)을 신설하여 인종이나 다른 이유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

지속가능성 제고

-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샌디에이고市는 2010년을 기준으로 2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35년까지의 나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 수돗물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동시에 하수 도시설도 함께 개선

지역경제 개발

- ‘Back to work’ 계획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시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Shop local SD’ 캠페인을 시행하여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늘려 도시 자족성을 높이고 창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 ‘Back to work’ 계획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그램⁴⁾
- ‘Shop local SD’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아마존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市와 상공회가 협력하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https://www.sandiego.gov/mayor/sotc2021>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sotc-2021-fact-sheet.pdf>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2021-mayor-gloria-sotc-address.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4)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917032>

5) 출처: <https://www.cbs8.com/article/news/politics/mayor-todd-gloria-to-release-back-to-work-sd-budget/509-633ddc35-6873-4e6c-a0f7-a114370fff6a>

탄소세 인상 등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 추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존 호건(John Horgan) 주지사 / 신년사

주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2021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CleanBC'라는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장기계획 추진과 심각한 경제·환경 문제에 직면한 주 역사상 최대 토목프로젝트 'Site C' 검토에 역량을 쏟을 계획

주요 정책방향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
 - 2020/21 회계연도에 136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
 - 2021/22 회계연도 예산은 경제회복에 우선순위를 둠
 -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다른 주와 연합하여 현재 23%인 연방정부의 주정부 교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
 -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폭 개편하고 확대
 - 보건의료 개혁은 간병인을 증원하고 요양시설의 밀도를 줄이는 등 주의 장기요양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
 -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병상 밀도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1명당 노인 비율을 줄여 장기요양 환경을 개선
-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 추진
 - 주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 'Clean BC'를 2020년 12월 5일 발표
 -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으로 요약되는 CleanBC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건물, 교통,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 탄소 배출량을 2007년 수준보다 40% 줄이기 위해 기후 개선 목표의 약 75%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 나머지 25%는 그 이후 18~24개월 동안 추진
 - 이 계획은 산업의 탈(脫)석유화, 대중교통, 대형 트럭, 청정기술 등에 초점을 맞춤
 - 주의 탄소세는 2021년 4월 탄소 배출량 톤당 40달러에서 45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까지 50달러로 인상 예정

열정·혁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종합개발비전 지속 추진

인도네시아 발리주 /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주지사 / 신년사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 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발리의 종합개발비전인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계획된 종합개발 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르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신성한 발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발리주의 코로나19 추이는 진정세로 접어들어”

-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회복률, 일일 사망자 수가 주정부의 통제범위 내로 진입
 -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이하, 회복률 90% 이상, 일일 사망자 수 5명 이하로, 이 중 회복률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주정부, 국군 9군 사령부(발리 주둔), 발리 지방경찰청, 발리 고등검찰청, 市·郡·洞·원주민마을 등 산하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의 결과

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공동체를 돕기를 요청

- ‘상부상조 시장’ 등 2020년의 혁신적인 활동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기여
 - ‘상부상조 시장’은 주정부 및 산하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직원 등이 발리 지역 중소기업 및 영세 농민들의 생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또한, 산업부 및 국가공예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문화공원에서 개최한 온라인 회화 전시회와 온라인 중소기업 박람회 등도 시민들의 열정 회복에 기여
 - “코로나19가 낳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정을 지녀야 함. 이러한 정신이 다양한 혁신 활동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돕는 결과를 낳게 됨. 따라서 새로운 희망을 여는 해결책을 찾도록 열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나갔으면 함”
 - 원주민마을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에서 출연(出捐)한 원주민마을 예산과 원주민마을의회장 건설 등은 원주민마을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발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상호협력 TF를 통한 원주민마을 역량 강화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종합개발비전 지속 추진

- 발리州的 종합개발비전인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계획된 종합개발 패턴’의 5대 중점분야에 해당하는 정책·프로그램 실행
 - 5대 중점분야는 ① 식품·의류, ② 보건·교육, ③ 사회보장·노동력, ④ 관습·종교·전통·예술·문화, ⑤ 관광
 - 2020년에 마련한 40개의 법제(法制)는 5대 중점분야의 정책 실행을 위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에 본격 시행
 - “우리는 2020년 말까지 15개 지방조례 및 25개 주지사 행정령 등 40개의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법제를 마련함. 모든 법제는 힌두교 철학에 따라 자연과 인간과 문화에 관련된 발리의 개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석이 됨”
 - “지난 2년간은 지방조례와 주지사 행정령 등을 완성하고, 자연환경의 질적 개선과 함께 관습, 전통, 예술, 문화 분야 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었음”
- 주지사 재임 3년 차인 2021년부터는 관광, 농업, 수산업, 공업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
 - 전방산업(downstream)과 후방산업(upstream)을 아우르는 농업 개발, 유기농 농장 시스템 실행, 해양자원 개발, 발리州的 전통경제 시스템 활성화, 지역의 지혜를 활용한 산업·보건기술 적용 등을 포함
 - 원주민마을은 통합적인 환경보호와 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 식물품종 보존, 관광 거버넌스 구축, 문화관광 표준 구축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청정에너지 달성, 2차전지 기반 전기차 이용 활성화, 마을 단위의 통합적 폐기물 관리,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제한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발리州的 움직임 가속화
 - 이러한 종합개발 패턴의 실행을 통해 발리를 힌두교에서 일컫는 세계문명의 중심 지로서 푸르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신성한 섬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함

<https://bali.tribunnews.com/2020/12/31/sampaikan-pidato-akhir-tahun-gubernur-koster-klaim-kasus-covid-19-di-bali-tertangani-dengan-baik?page=all>

<https://www.nusabali.com/berita/80043/bi-gelar-pasar-gotong-royong-krama-bali>

<http://balifactualnews.com/gubernur-koster-sampaikan-capaian-pelaksanaan-visi-nangun-sat-kerthi-loka-bali-melalui-pola-pembangunan-semesta-berencana-menuju-bali-er>

<https://bali.tribunnews.com/2020/12/31/gubernur-koster-bakal-laksanakan-sejumlah-kebijakan-penting-dan-strategis-di-2021-ini-daftarnya?page=al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적극 적응·동참 촉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 / 신년사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시민 모두가 적응하고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령을 시행하는 등 보건정책을 강화할 계획

“2021년은 코로나19 ‘정복’의 해가 될 것”

-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
 - 건강 유지와 보건지침 준수, 인내 등을 강조
 -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지침을 준수하여 2021년에는 새로운 열정으로 코로나19의 도전에 맞서나갈 것을 제안”
 - “지금은 우리가 도전에 맞서 싸워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 코로나19로 바뀐 변화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동참해줄 것을 촉구
 - 코로나19 위기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2021년은 생활방식, 개인위생, 일상활동, 경제활동 등에서의 급속한 변화에 시민 모두가 적응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발전하는 기회의 해가 되기를 기대
- 연초부터 州정부의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PSBB) 조치를 연장하는 주지사 행정령 시행
 - 공무원, 공기업·민간기업 직원의 75% 재택근무, 종교시설 최대 50% 인원 수용, 레스토랑 최대 25% 인원 수용 및 오후 8시 영업 종료 등의 세부지침 포함
 -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최대 25만 루피아, 보건지침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최대 5,000만 루피아의 벌금 부과

<https://metro.tempo.co/read/1419271/anies-baswedan-ajak-warga-jakarta-taklukan-pandemi-sebagai-tantangan-2021/full&view=ok>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1/01/01/anies-baswedan-ajak-warga-dki-jakarta-taklukan-pandemi-di-2021-pascadinyatakan-sembuh-dari-covid-19?page=all>

<https://regional.kompas.com/read/2020/12/31/09470411/anies-baswedan-gubernur-terpopuler-dan-tervokal-di-2020-disusul-ridwan-kamil?page=all#page2>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문화 분야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제 위기 극복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 신년사

바르셀로나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모델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산업 분야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위해 바르셀로나 관광산업의 핵심인 문화 분야의 재활성화 및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 그 외 경제 회복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도시의 주요 프로젝트를 재정비하여 추진하고, 주택 임대료 규제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보건위생 대책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 확보에 주력
 - 바르셀로나의 코로나19 현황은 안정적인 상태. 그러나 의료인들이 모두 지쳐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
 - 백신의 2차 접종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식료품 박람회와 모바일 박람회 개최 추진

- 바르셀로나 박람회장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는 지난해 취소되었던 바르셀로나의 가장 중요한 박람회인 국제 모바일 박람회와 식료품 박람회를 각각 6월과 5월에 개최 추진
 - 이들 행사는 향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접종 현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예년과 같이 대규모로 개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경제위기 극복

- 공공 도로에 3,000여 개의 테라스 설치 허가
 - 공공 도로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요식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전 상태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극복에 주력
-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
 -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전부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속 추진

-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 분야의 재활성화를 위해 카탈루냐 州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 문화는 문화 중심 도시 바르셀로나가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핵심 요소
 -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문화 분야에 대해 카탈루냐 州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
 - 市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도시의 중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분야의 타격을 줄이고자 했으나, 카탈루냐 州정부에서는 행사를 전격 취소하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지자체별 입장 차이가 존재
 -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전의 무질서한 과포화 상태의 관광모델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모델의 핵심은 문화
 - 2021년 봄과 여름 사이 포스트 팬데미아(pandemia) 시대의 새로운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낼 것임
 - 2021년에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많은 32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 중 8억 유로는 부채 상환에 사용
-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노숙자 증가 대책 마련
 - 바르셀로나 노숙자 4명 중 1명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새롭게 노숙자가 되었음.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4천5백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



[사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최한 바르셀로나의 그렉 페스티벌(Grec festival) 무대 모습
(출처: 크로니카, 2020년 7월 21일)

주거대책

- 주택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 강조
 -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직업이 있음에도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음. 이들을 위해 주택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고 있는 현 이민법 개정이 필요
- 공공주택 2,000여 세대 공급
 - 2021년 市는 2,0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

유럽연합 기금 유치 추진

-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피해 복구 기금 ‘Next Generation’ 유치 추진
 -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차질이 빚어진 다양한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위해 유럽 연합의 피해 복구 기금 유치가 필요
 - 이 기금을 유치해 생물의학 분야 지원 및 공공병원 확충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구시가지 지역 정비 등의 프로젝트, 베소스강 유역 개발과 같이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프로젝트를 재추진할 계획

항구 주변 지역 재정비

- 바르셀로나 항구에 에르미타주 박물관(museo de hermitage)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
 - 현재 바르셀로나 항구 주변 지역 재정비계획이 진행 중임
 -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이 계획과 관련하여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의 설계안을 토대로 건설을 추진 중임. 박물관이 건설되면 항구 재정비계획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市는 이 건설계획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이를 승인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임
 - 암스테르담과 같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한 사례가 실패한 적이 있음
 - 항구 재정비계획은 청색경제 관련 시설 혹은 문화시설 유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
 - 청색경제(blue economy)란 해양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체계를 말함



[사진] 에르미타주 박물관 건립 예정지인 바르셀로나 항구 모습(출처: 메트로폴리, 2021년 1월 27일)



[그림] 바르셀로나 항구 에르미타주 박물관 예상도(출처: 메트로폴리, 2020년 11월 6일)

바르셀로나 시장 신년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 '알칼데사 레스폰'(Alcaldesa respon)(2021년 1월 26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tag/lalcaldessa-respon/>

바르셀로나 아다 콜라우 시장, 州정부에 문화 분야 회복을 위한 대처 방안 요구(라방가르디아, 2021년 1월 28일)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210128/6204090/colau-reclama-govern-plan-choque-rescate-cultura.html>

바르셀로나 아다 콜라우 시장, 바르셀로나 항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건설에 대한 대안 요구(메트로폴리, 2020년 1월 27일)

https://www.metropoliabierta.com/informacion-municipal/colau-port-alternativa-hermitage_35733_102.html

바르셀로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렉 페스티벌 개최(크로니카, 2020년 7월 21일)

https://cronicaglobal.elespanol.com/creacion/festival-grec-continua-programacion_369672_102.html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세계도시동향 제503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5월 1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